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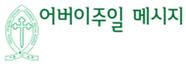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아버지주일 메시지

##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 네 목의 금 사슬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이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 1:8)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혜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잠. 1:9)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란 말씀은 큰 명예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목의 금사슬”이란 것은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꼭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도록 경청해 들으며, 또한 궁금해 하시는 것 다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계시다면, 전화라도 꼭 하셔서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전파를 타고 전해 질 수 있도록 진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도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며,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 오늘은 아버지 주일

## 주일예배 시작 전 - 카네이션 달아드리 찬양예배 시 - 교육1국 특별찬양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찬양예배 시에는 교육1국이 특별찬양의 시간을 갖는다. 유아부(지휘 : 남재은 집사, 반주 : 신아령 집사)는 예수님의 향기를 외 1곡을, 유치부(지휘 : 박서정 선생)는 성경암송과 사랑해요 외 1곡을, 유년부

찬양대(지휘 : 김현지 선생, 반주 : 권보화 선생)는 주님 닳기 원해요, 유년부 엔젤스와 유·초등부(지휘 : 박예주, 홍소희 선생)는 최고의 선물, 초등부 글로리아(지휘 : 이예원 선생)는 성령이여 외 1곡을, 초등부 찬양대(지휘 : 박래경 집사, 반주 : 흥혜란 집사, 오르간 : 김윤지 선생)는 찬양해 외 3곡을 찬양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14대 장로후보 선출되다

## 공동의회 - 5월 17일(주) 찬양예배 후

지난 주 우리교회 제14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에서 장로후보 18명을 선출하였다.

5월 17일(주) 공동의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장로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성도들의 깊은 기도로 준비되어 은혜 중에 이번 선거가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1. 주동재



2. 홍일성



3. 차도훈



4. 서경학



5. 김규태



6. 김광룡



7. 진교남



8. 은기창



9. 최규초



10. 김성준



11. 김광욱



12. 차영도



13. 이준호3



14. 윤성남



15. 이종창



16. 송인수



17. 강낙훈



18. 김상태

“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

# 제47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공개세미나

## 주제 : 한국장로교회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연합 5월 18일 (월) 오후2시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원로목사)은 최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발의, 추진하고 있는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분열된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와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로 47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장로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8)

**(문 168)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5:29 말씀은 인과응보 교리를 말하는 것 같아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는 말씀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므로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일으키는 신앙의 규범을 세우신 것이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 5:24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음에서 죄인을 구원키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이나 악행은 사람 편에서의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을 의미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관심이나 신용 또는 영광을 위해 무엇을 했든지 또는 타인에게 어떤 유익이나 칭찬을 받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롬 8:7-9)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볼 때에는 회심한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주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심으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롬 6:12-14)

신앙은 선한 열매를 맺으나 그것이 공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 2:17-18)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고후 5:10) 결국 땅에서 행한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구원과 저주를 가르는 심판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으므로(마 19:17) 주님이 거듭난 자를 통해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선한 열매를 맺거나 거짓 신앙은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고로 요 5:29 말씀은 은혜 교리와 마찰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계속)



# 천국의 평안을 전해주시는 아버지



박길순 집사 (10교구)

2015. 2. 2(월) 장기결석노약자 심방을 하시던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교회가 부흥되나 봐요!”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는 아버지와와의 대화였습니다. 일 어나지 못해 죄송하다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한듯한 음성으로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에 화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7일(토) 임종시까지 요양원에서의 4개월... 그 시간은 예상된 정리 기간이었던 듯 어머니와 서로 고마움과 미안함의 진실된 고백을 자주 나누던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 생전에 8남매 이하 14명의 손자녀와 9명의 증손자녀까지 보시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주지시켰던 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아들들, 며느리, 딸들, 사위, 손자들 앞에서 간간히 통증에 시달리셨지만 침착하신 모습으로 모두의 마지막 말에 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편히 쉬세요” 하신 말씀엔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천국에서도 성경암송 1등 하세요”라는 저의 말에는 “응,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며느리와는 “아버님, 더 이상 고통은 없고



기쁨만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마중나올 거예요” 라는 말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조금 후, 맑고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실 때 천국입성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고, 우리도 같이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은 매우 컸으나 나

하지 못해 아쉬운 효도를 대신 어머니께 전하겠다는 무언의 약속과 함께 형제들은 더욱 결속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식으로서 큰 잘못도 많았습니다. 노인 두 분의 수발에 짜증내며 내 삶이 없노라고 했던 불평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레 4:13)”라는 말씀에 비추어볼 때 나에게 주어졌던 그 생활들이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삶이었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음이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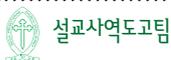
두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도 너무 지체 작년 9월에 한 달간 입원한 것 때문에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가 빨라진 것은 죄책감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반성이 계속되는 동안 맞이한



말인예배 순간까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청지기역할로 자식들을 키워주셨으므로 감사만을 해야한다는 것, 누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이, 더 나아가 반감이 생겼던 일들에 대해

서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아버지의 과격한 성격은 어릴 때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었던 절구였을텐데 그것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미숙함이 아직도 제게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린 이전도협회에서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린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영혼만 구원하지만, 어린이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영혼과 아울러서 그 일생을 구원하는 것’ 이라는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두 달만 더 사셨으면 백수잔치를 해 드렸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땅과는 비교불가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잔치에 계시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신사적이고 고마운 면만 생각나네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다 보면 곁에 계신 아버지도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매순간 하나님과 기쁘실 아버지께 우리도 좋은 소식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한다



주경자 권사 (6교구)

우리교회에는 예배를 위한 설교도그림이 매 예배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각 예배시간마다 도그림원들은 20분전 306호에 모여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한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며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고는 예배의 순서와 시간을 맞춰 먼저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안내, 찬양대, 헌

금, 헌금송, 주차위원)들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노철 담임목사님 입으로 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되어 듣는 자들 마다 회개와 고침이 일어나 거듭나고 온전해져 천국백성이 다 되길 소원하며 우리목사님 온종일 강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모두 되어지는 일들은 기도자와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정치와 경제, 사

회와 문화와 교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동체는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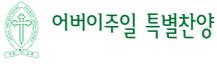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평안하길 바랄 수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 설교 도그림은 함께 기도할 강력한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시 기도하는 도그림원들



## 부님에게는 기쁨을...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삼서 1장 3-4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믿음과 신앙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사도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다음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믿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내 자녀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이 주일을 맞아, 찬양예배시에 교육1국에서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유아부(지휘 : 남재은 집사, 반주 : 신아령 집사)는 예수님의 향기를 외 1곡을, 유치부(지휘 : 박서정 선생)는 성경암송과 사랑해요 외 1곡을, 유년부 찬양대(지휘 : 김현지 선생, 반주 : 권보화 선생)는 주님 닮기 원해요, 유년부 엔젤스와 유·초등부(지휘 : 박예주, 홍소희 선생)는 최고의 선물, 초등부 글로리아(지휘 : 이에원 선생)는 성령이여 외 1곡을, 초등부 찬양대(지휘 : 박래경 집사, 반주 : 홍혜란 집사, 오르간 : 김윤지 선생)는 찬양해 외 3곡을 찬양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지도 서준권 목사

## 신임 교역자 청빙 초등부 준전임 목사

심진의 (沈珍熙) 1974년 생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 신학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M.A 과정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M 과정 졸업

## 서울강남노회 제56회 정기노회 5월 12일(화) 오전 9시, 창성시민교회

서울강남노회 제56회 정기노회가 5월 12일(화) 오전 9시 창성시민교회(장제한 목사 시무, 031-726-611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2-57)에서 모인다.

### 동정

■ 이중윤 원로목사는 5월11일(월) 새로운한국국민운동 상임대표모임, 5월13일(수) Save NK이사회를 소집한다. 5월14일(목) 한국군선교신학회 후반기추진계획보고, 5월15일(금) 국민운동기독교평신도 공동대표모임, 장로교표준주석 편찬위원회와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과 간담회, 한장총신학신학대학(원)찬양제에서 축도, 5월16일(토) 종교개혁500주년7차신학학술대회 개최설교를 한다.

■ 전사회: 13교구 고선옥 권사 2015 세계수재화 트리엔날레전 5월16일(토)~21일(목)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 주일식당봉사 : 하나 전도회(5.10)  
에스더 전도회(5.17)

■ 금주의 식사 제공 : 무명성도  
■ 떡 제공 :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정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버지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2. 제 14대 장로선출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3. 학교단 다체제를 통하여 한국장로교회가 연합되도록
4. 교구별 특별 찬양이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 호산나대학생들 “제15회 IT Festival” 입상

'KT와 함께하는 제 15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이 4월 30일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경기도내 장애인들의 IT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축제로 도내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해 각 분야별 수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우리 호산나대학에서도 대한학교의 윤준호, 이시운 학생, 교양학부의 강태우, 김병준, 김현수, 이에찬, 전명수 학생, 사무자동화과의 정신엽, 홍진혁, 구재형, 김종열, 정재철 학생(총 12명)이 참여하여 태블릿 정보검색대회 부문 최우수상(정신엽), MS경진대회 부문 우수상(전명수), 모두의마블 우수상(홍진혁)을 입상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를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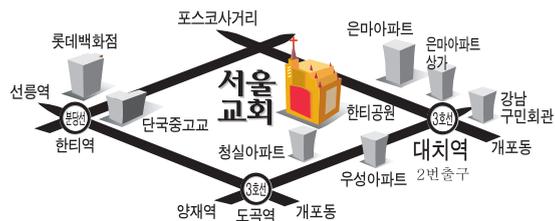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 참여한 김현수(교양학부1) 학생은 “대회는 대회일뿐, 결과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즐겁게 대회에 임했으며 내년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노력한 학생들의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수상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